

손흥민, 마침내 터졌다

리그 9경기 만에 골맛... 부진 우려 훌훌 털어
“그간 팀에 미안... 자신감 찾는 전환점 될 것”

손흥민(31·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개월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그간의 우려를 한 번에 씻어냈다.

5일(한국시간) 손흥민은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22-2023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27분 썬더볼을 넣으며 팀의 4-0 승리에 기여했다.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와의 8라운드에서 헤트트릭으로 리그 1~3호 골을 터트린 뒤 줄곧 침묵하던 손흥민은 9경기 만에 골 맛을 보며 마침내 4호 골을 기록했다.

선발 출전에 가벼운 움직임 보이던 손흥민은 후반 27분 후반에서 해리 케인이 연결한 공을 상대 수비수가 제대로 건어 내지 못하자 재빨리 쇄도하며 왼발로 마무리지었다.

손흥민은 득점 후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환호했고, 동료들도 오랜만에 골을 넣은 손흥민을 축하해 줬다.

손흥민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후반전에 우리가 흐름을 바꿔 4골을 넣었고, 경기를 지배했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3개월 만에 득점포를 올린 것에 대해선 “그간 팀에 정말 미안했다”며 “오늘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담담하게 각오를 밝혔다.

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 직전인 지난해 11월2일 프랑스 마르세유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 중 부상을 당하며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다. 그 후 골 침묵에 빠지면서 자신감과 경기력이 모두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편, 리그 3경기 만에 승리한 토트넘은 10승3무5패(승점 33)가 되면서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1승2무4패·승점 35)와의 격차를 2점으로 좁히며 흥미진진한 순위 경쟁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22-23 EPL 원정경기에서 팀의 네 번째 골을 넣은 뒤 마스크를 벗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 구단 홈페이지



1일 경기 화성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현대건설과 기업은행의 경기에서 현대건설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현대건설 배구단

현대건설, V-리그 16연승 위업

박철우, 6500득점·350서브 돌파... 레오, 4경기 연속 트리플크라운



V-리그 전반기에 대기록이 쏟아졌다.

지난해 10월22일 개막된 '도드람 2022-2023 V-리그'는 3라운드를 마치고 현대건설은 역대 최고 기록인 16연승, 개막 15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3라운드 종료 기준 승점 45점으로 1위에 오른 현대건설의 뒤를 2위 흥국생명에게 승점 42점으로 바짝 뒤쫓았으며 이어지는 중위권 싸움에선 3위의 한국도로공사 승점 26점, 6위 IBK기업은행이 승점 22점

현대건설은 4개의 신기록을 경신했다. 통산 최다 연승인 16연승을 일궈냈고 동시에 역대 리그 개막 후 최다 연승인 15연승, 역대통산 홈 최다연승인 23연승, 정규리그(단일시즌) 최다연승 타이인 15연승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반면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역대 리그 개막 후 최다 연패인 17연패와 역대통산 최다 연패 타이인 20연패를 기록했다.

3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각 팀 선수들의 기록도 여러 개 속출했다. 남자부 한국전력 박철우는 누적 6562득점 351개의 서브 득점으로 6500득점과 350서브의 1호 달성 기록을 경신했고, 한국전력 신영석이 누적 1093개의 블로킹 득점을 달성하며 이선규(전 KB손해보험)가 세운 1056개의 기록을 넘어서 해당 부문 1위의 자리에 등극했다.

대한항공 한신수는 누적 1만6974개의 세트를 성공시키며 해당 부문 V-리그 1호

달성 기록을 경신 중이며, 현대캐피탈 여오현이 592경기에 출장해 남자부 최고 출전 경기수를 새롭게 쓰고 있다.

OK금융그룹 레오는 V-리그 최초로 연속 4경기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3라운드 MVP를 수상한 레오는 총 7번의 라운드 MVP를 거머쥐며 자신이 세웠던 남자부 최다 라운드 MVP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여자부 현대건설 양효진의 라운드 MVP 수상 기록과 동일한 기록이다.

우리카드 나경복과 대한항공 광석석을 비롯한 세 명의 선수가 역대 10호~12호 200서브 기준기록을 달성했고, 우리카드 최석기, KB손해보험 박진우, 대한항공 김규민이 순서대로 역대 12호~14호 500블로킹의 기준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삼성화재 박상하가 역대 5호 800블로킹, 대한항공 정지석이 역대 10호 5000수비를 달성했다.

여자부 현대건설 황연주가 누적 455개의 서브 득점을 성공시키며 V-리그 최초로 450서브 달성 기록을 경신했다.

수비 부문에서는 흥국생명 김해란이 1만5000개의 디그 성공 1호 기록을, 한국도로공사 임명옥이 5500개의 리시브 1호 기록을 경신했으며 임명옥은 여자부 최초로 500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됐다.

한국도로공사 배유나는 역대 15호 200서브 기준기록 보유자가 됐으며, 현대건설 황연주는 역대 12호 5000수비를 돌파했다.

후반기에도 다양한 기준 기록들이 달성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황태기가 역대 13호 200서브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카드 나경복의 역대 16호 3000득점, 우리카드 오재성의 역대 11호 5000수비 달성이 유력하다.

스카이데일리/뉴스

검찰수사·리그 강등·선수유출... 프로축구 성남FC 삼중고

프로축구 성남FC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수사와 2부 리그 강등에 핵심 선수 연쇄 유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성남FC는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을 압박해 성남FC 후원금을 걷는 등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성남FC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FC 새 구단주가 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즌이 한창인 상황에서 축구단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선수단을 흔들었다.

예산 삭감에 주전 선수들 줄줄이 이적
이기형 감독·선수들, 4일 전지훈련 출발

김남일 감독은 같은 해 8월 사임했고 성적은 급격히 나빠졌다. 성남은 결국 2부 리그로 강등됐다.

1부에서 2부로 강등되자 선수단 인건비가 절반 가량 삭감됐다. 실망한 주축 선수들은 구단을 떠나기 시작했다. 구단 운영 예산이 삭감된 탓에 주축 선수들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했다.

중앙 수비수 연재운은 제주 유나이티드로, 부주장으로 핵심 수비수였던 박승일과 측면 수비수 이시영은 함께 FC서울로 떠났다.

미드필더 김민혁은 지난해 우승팀 울산

현대로 이적했다. 중원부터 측면까지 두루 맡았던 유인수는 강원FC로, 유망주 강재우는 부천FC1995로 떠났다.

미드필더 구본철은 군 입대했고 측면 수비수 최지욱은 같은 2부 리그 구단인 부산 아이파크로 옮겼다. 또 다른 수비수 권완규도 FC서울로 갔다.

지난해 그라운드를 누빈 성남 선수들 중 절반 이상이 팀을 떠난 셈이다.

2부 리그인 K리그2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성남은 새 선수들을 영입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새 사령탑이 된 이기형 감독은 선수들



성남FC 구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16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뉴스

과 함께 4일 1차 동계 전지훈련지인 태국 치앙마이로 떠났다. 성남은 리그 개막 전에는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할 예정이다. 스키데일리/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